한국의 다문화 형성과 종교의 역할

박성호*

I. 서론
II. 한국의 다문화 현황
III. 다문화사회와 종교
   1. 종교와 사회통합
   2. 다문화와 다종교
IV. 다문화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21세기에는 절대적 주권론과 국민국가중심의 체계가 봉괴로 인한 글로벌리즘, 신
자유주의가 주장되는 대변학의 시대이다. E.B.타일러는 문화를 "지식·신앙·예술·도
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승권의 총체"1)로
규정한다. 하지만,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대규모의 자본과 정보, 기술, 사찰, 상품
등의 향미적 이동은 세계를 분열과 통합, 동질성과 이질성이 서로 뒤엉키며 문화
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가속화시키면서, 더 이상 문화가 어느 한 지
역, 사회, 집단이라는 공간에 '투여' 있지 않게 된 것이다.

국가 구성 단계에서부터 인종적,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
야 했던 국가뿐 아니라 한국과 같이 오랜 기간 '단일민족국가' 전통을 유지해온
사회에서도 이주의 본격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다원화가 끊임없이 진행되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연구원
1) Edward Burnett T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v. 1, New York : Cambridge : 
고 있다.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교차하는 편각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지만, 문화 상호의 전면적 재구성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는 않은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다.

다문화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어서 단순히 다국적인 외국인

또 여타 외국의 문화가 자국의 문화 속에 유입되어 섞이거나 섞여있는 현상만을 다문화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2) 다문화된 사회는 사회구조와 제도가 다문화 현

상을 반영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믹스와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임을 인정하

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적

문제는 다문화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다양한 믹스와 문화의 공존

과 불평등의 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경합성을 높이면서 다양성

중대에 따른 사회적 분열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의

창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의 이데올로기의 문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이 다문화 사회가 초래하는 다문화의 문제이다. 종로안 인간과 행동양식의 가장 심

충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때문에 종로를 절대신험체

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종로는 절대신험체계이며 구조적 세계관안이다.

절대 신념체계는 다른 신념체계와 만나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

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은 복잡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많은 선발 다

문화국가들이 경험한 종교체제로 인한 갈등으로부터 한국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4)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종교역할의 재검토를 통해, 종교 간의 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에 관한 국

내외의 사회학적, 정책학적 이론들을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기초조사로

---

2) 한건수, 비판적 다문화주의, 유세스로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핵교류연, 다문화와의 이해,  
3) 유이정,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제2호, 국외업체조사처, 2010,  
p. 7.
4) 1996년 세류항 현행법은 '봉양들물문'을 제정했다. 냉전 중세 이후 미래 세계 정치를 진정하

면서, 중요한 측은 이데올로기를 경제적 요소가 아니라 종교, 언어, 역사, 조상 같은 문명적

요소, 곧 다른 문명 간 충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문명이 정신적 사회와 관련된 인간간의

공유된 제계라면, 종교는 이 공유된 제계 내지 집단 정체성 형성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그렇다면 문명 충돌물은 결국 종교 충돌물이 래도 파편이 아닐 것이다. 유엔도 1980

년대 미국과 서유럽 학계에서 문명의 충돌이나 종교 전쟁의 불가피성을 경고하고 나서가

유엔 종교 결의문 ‘종교 선양에 근거한 비판적 경제와 차별 제재에 관한 선언

(A/RES50/55 1980.11.25.)을 제정하기도 했다.
서 정부 통계자료를 바탕하여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며 각종 언론의 다문화 관련 보도 내용과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다문화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II. 한국의 다문화 현황


서울과 경기도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안산시와 부천시, 수원시 등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많은 유입, 결혼이민자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1> 외국인장기체류자5) 추이(단위 명)
이 1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0.24%로, 2000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 중 0.44%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 증가세는 한층 가파르게 진행되 어 2005년에는 드디어 전체 인구의 1%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외국인 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현재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는 약 87만 명이, 2011년 9월 말에는 약 107만 8천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 다.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2월 말 135만 5천 명을 기록해 국내총인구의 3%에 육박했다.

<table>
<thead>
<tr>
<th>(단위: 명, %)</th>
</tr>
</thead>
<tbody>
<tr>
<td>2006</td>
</tr>
<tr>
<td>한국 체류 외국인</td>
</tr>
<tr>
<td>한국 체류 외국인 비율</td>
</tr>
<tr>
<td>우리나라 총 인구수</td>
</tr>
<tr>
<td>우리나라 총 인구 비율</td>
</tr>
</tbody>
</table>

의 생활양식’이란 뜻이 된다. 우리나라는에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민족구성으로 인해 부합되는 정치적 문제, 인권, 복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다문화’ 내지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생성된 것이다3) 또는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탄력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는 그 목적을 두는 이념체계의 혹은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역할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또는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책 목표로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문화교육은 강력한 동화교육을 지향함으로써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다문화사회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 가치관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주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배제적 태도를 보이며 다문화수용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정책’의 뚜렷이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을 제외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결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주된 정책대상이 되고 있다.

다문화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은 어느 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앞서 가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경지되고 잣지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시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한국의 주류사회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들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기여했더라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속과 강제 배거하는 출입국 관리 행정에서 크게 빪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 여성 이주자의 경우, 출신국의 문화와 상이한 한국의 남성중심의 가족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한국의 적응프로그램은 한국 문화에의 통화를 강조하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국제결혼 이주자

8) 윤인근,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의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복지학회 동아시대회│queeze!'s 한국 문화학회(07-7)〉, 2007. p. 73.
들의 작용의 어려움과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한국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직장에서의 차별과 인종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관련이 깊은 법률 중 하나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규정은 차별모형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국노동자체 순환경로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이주자의 혼란, 출산, 양육과 보건·의료 및 교육에 관한 관리와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다문화란 용어가 범람하면서도 정착 다문화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전지의 성찰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문화 국가로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인은 아직도 협동주의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아직 한국인들이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소수의 다문화 이주민에 대하여 적극적 포용의 수준이 아닌 단지 동질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단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보면 2), 한국과 교류가 빈번하거나 다문화 이주자의 출신국에 해당하는 외국인 집단을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세르비아(남做大做强), 동남아시아족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외국인들은 미식을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었다. 이어서 세르비아, 조선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거리감을 맡게 느끼는 대상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였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국가의 구성은 주로 동남아시아 혹은 중동국에 대표되는 아시아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생각과 시각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 다문화 이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2세나 3세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접하는 다문화 이주민들 중 일부가 한국에서의 삶이 상당히 지나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아직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인식과 포용의식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

10) 이 법률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동법 18조, 28조, 30조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다는 의미이다. 13)

다문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주류 한국인들의 인식형태는 한국 다문화 정책 유형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주류 사회의 협조나 인식전환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문화적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
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외국인 혼합이나 보다 심각하며, 또 정착적 감동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14)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다문화 국가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그렇
게 쉽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 III. 다문화사회와 종교

1. 종교와 사회통합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각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전통과 분리해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제도도 하나의 사회제도인 한 그 나라의 역사적 사
회적 산물이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종교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사회통합과
사회변화라고 한다면 사회통합의 가능성이 종교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
을 정당화하면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집단의식을 마련해주고 이에 따라
사회질서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교의 사회통합의 기능은 다원주의 종교체계 속에서 종교적 활동만으
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복잡한 사회관계에서 분열과 갈등이 평화의 상황을
화합과 일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없이는 불가
능하다. 각각의 종교는 한국사회의 사회보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
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다종교사회이다. 불교, 유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한국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
하지만 2003년도 한국의 종교분포는 다음과 같다.

13) 김성희,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1호, 2004.
14) 박병성,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사회철학 12호, 2006.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불교</td>
<td>47.0</td>
</tr>
<tr>
<td>개신교</td>
<td>36.8</td>
</tr>
<tr>
<td>가톨릭</td>
<td>13.7</td>
</tr>
<tr>
<td>유교</td>
<td>0.7</td>
</tr>
<tr>
<td>원불교</td>
<td>0.4</td>
</tr>
<tr>
<td>기타</td>
<td>1.4</td>
</tr>
</tbody>
</table>

| 비중교 인구 | 종교없음 | 46.1 |

불교, 개신교, 가톨릭, 유교, 원불교, 기타 종교는 대부분 서로 경쟁하며 대로는 서로 갈등하며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도 이러한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바람직한 사회를 추구하는 인간의 활동은 인간사회 내에 기초적으로 존재하는 상대상조의 정신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어느 인간사회에서나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을 도우려는 상대상조의 정신은 인간의 사회활동의 보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종교적 계열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도 차별을 배포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에 의하면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3개 종교가 전체 종교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들 3개 종교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은 저다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의 제도는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익이 강조되고 삶에 대한 성찰이 근대화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의 대상과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 예컨대, 현대사회복지사업은 그 대상지의 역할에 의한 회복을 지향한다.16)

종교의 특징은 신앙을 함축하는 자들끼리 신앙적 공동체를 갖는 데 있다.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원칙 위에 교단은 신자에게 교리를 틀져서 가르치며 공동체의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외부에 대해서는 전도 혹은 포교를 한다. 이러한 전도 혹은 포교는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 종교의 자유는 자유권 발달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나 타종교의 관계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주권인이 되기도

---

15) 한국 통계청 2003년도 발표자료 참조.
하였다.
우리나라의 2005년 연구조사 당시 3대 종교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17

<그림 2> 3대 종교의 지역별 분포

가톨릭이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불교는 경상도에, 개신교는 전라도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다중교사회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나 복지사회와 같은 정치경제적 어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념 들로서의 세계관이 결합 다양한 상황, 곧 다중교사회에서 양성된 사회질서를 이룬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이 정치경제적 요인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17) 한국 통계청 2005년도 발표자료 참조.
나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비전이 제시되어도,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한다. 그 근본 원인은 그 사회가 주도적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공유하는가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종교가 사회규범보다 상위에 있다는 종교적 확신에서 비롯된다. 그 확신 위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무한 보장을 주장하고 또 행사하는 데서 종교간 갈등이 야기된다. 절대신념체계로서의 종교적 세계관들은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무제한 행사할 때, 무엇보다 먼저 종교 간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사회규범과 정치질서에 혼돈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주도적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이룩하는 근본적인 과제인 것이다. 우리사회는 모든 세계관이 공존하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사회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다문화사회의다. 그러나 다종문화계도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완만적이며, 따라서 우리가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대사회의 건강한 다문화질서를 창조하는 것은, 곧 오늘의 지구촌이 지닌 민족과 종교사이의 갈등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2. 다문화와 다종교

지금 한국은 단일 민족국가라는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외국인 숫자가 120만을 넘어서고 있다. 종교계에 다문화 관련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는 종교와 문화,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난생 이들과의 공존은 우리의 종교계에도 적지 않은 과제를 불러 오히려 예상되고 있다. 

1989년 대표적인 다문화가정인 프랑스의 한 종교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조의 신체 생태정의 이념으로 수업시간에 그들의 ‘헤드스카프’를 벗으려 하지 않아 퇴학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종교문리의격에 의한 불평등이라는 이념으로 양면되었다. ‘헤드스카프’ 사건은 프랑스의 이민통합문제, 프랑스인의 정체성 문제, 라이시메(정교관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맡고 있는 사건.

18) 가독교회에서는 이와 관련 2012.4.28, 제7회 한국조직신학자 전국대회의 주제를 '다문화-다종교사회의 교회의 선택'으로 하였다. 김규진 박사는 "한국의 가독교회는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세계에 있는 다른 종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들어 살면서 한국 사회를 위해 함께봉사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크리스천투데이, 2012.04.30치기사 참조.
이었다. ⑰

2005년 안중독등 ⑱ 이후 프랑스의 교육부는 연중 3개월간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 부는 2007년 '국민의민족주의'를 개입하고 방송매체의 위험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다문화성 교육의 핵심에 위치한 허드 틱 시스템, 방송 관련 전문의 다문화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고용조직의 검토 등 다문화주의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관의 차이로부터 일어난 갈등은 비단 프랑스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의 이슬람 정부는 2007년 이탈리아와 베네치아에서 벌어진 정서가 확산되는가 하면 지금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독일 인구의 5%가 터키계 이슬람교로 집계되는 등 이는 전 유럽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의 무슬림은 이미 큰 세력으로 미국의 펜 포럼(Pew Forum)에 따르면 유럽 내 무슬림 인구는 유럽 인구의 5% 수준인 3,81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세계는 지금 자국 존중시대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활발해진 시점에서 특히 기독교계 전통과 충돌이 잦은 이슬람 등에 의해 갈등을 빚고 있다. 다문화와 연계된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지고 다문화가 다문화사회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다문화 사회의 전환을 지니고 있다. 삼미나중부와 불교, 유교와 근세에 전개된 천주교, 기독교, 대중교 등 민족 신앙과 이슬람교까지 각종 종교가 활발하게 흐르고 있는 사회는 분명한 예시이며 모델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와 같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단군성 사건이나 흔들어진 등과 같은 종교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국내 종교간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⑲ 종교간 갈등은 물론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

19) 2004년 2월 프랑스 하이를, 2004년 3월 프랑스 상당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학교 내에서 드러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야의협의 과 거의 대다수 찬성으로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교육부는 5월, 7월 학기부터 학생들이 증여하는 "예배석"을 발표하였다.

20) 2005년 11월, 프랑스에서는 자동차와 상징이 상이한 자고가 이어지며 화상병이 남아나는 대규모 소요시대가 발생하였다. 이 소요시대 중에는 어둠은 주로 아프리카계 또는 이슬람계의 이민 2~3세 집단이있었다. 폭력에 불거졌던 시기 시산지역의 민간인 정착민, 농민, 동네 주민, 그리고 투쟁중인 민간인의 정착민은 그동안의 체제적 분노를 대표하는 화상병으로 불리게 되었다.

21) 정부는 국내외도 날로 심화되는 종교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의 위협한 연구 용역보고서가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 경제, 2011.8.30 기사 참조.
다. 따라서 건전한 종교 종도의 조성은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22)

IV. 다문화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현재 정부공식통계(행정안전부, 2008)에 따르면, 외국인 지원기관은 총 564개가 있는데,23) 이중 공공기관이 102개, 종교단체가 121개, 순수신간이 341개로 종교단체의 다문화사회정책 참여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24) 우리나라 종교계의 이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사례 발표25)에 의하면 천주교

22) 행정상, 2011.7.26과 사실은 "노르웨이 베네가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 등 극우적 편견을 가진 인물의 소행이 드러나면서 국내에서도 반(反)외국인, 반다문화주의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자하고 있다. 자제 이런 기류를 무시하고 방치할 경우 사회문제 요소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위기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것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외국인 노동자 60만 명, 다문화가정 18만 가구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아직 크게 부각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 거주자 중간이 비해해 종교인종적 갈등이 조기적 표현되는 추세이다. 급격한 다문화주의의 유입과 정책의 인명감의 저하가 차기 행정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것은 다문화 반대 움직임이 날로 커지고 조직화되는 경우이다. 현재 관련 시민단체만 10여 개에 이르고 일부 인터넷 카페의 경우 화전 맹인

23) 이는 사례연구 2.3개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의 경우 중앙에서 이주민 지원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971년 주교회의를 열어 ‘이주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92년 서울대교구에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개설했다. 2003년에는 각 교구마다 이주자문 대표자유권회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 신자가 대부분인 필리핀인들의 경우 치앙농 성당에서 본국의 신부를 초청해 파견로고 이며 미사를 실시해 매주 2,000여 명이 신자들에게 참여하고 있다.

천주교 외국인부교구는 2009년 10월 25일 구리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제2회 담

화축제, 마라톤 ‘임마의 나라, 아내의 나라’를 개최한 것을 들 수 있다. 축제

와 더불어 진행되는 바자회에서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아동지원에 필요한 재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베테남, 필리핀 등 다른 여러 나라의 전통물품과 음식을

전시 및 판매하기도 하였다.26)

개선교는 1993년 한국기독교협회협의회가 외국인노동자주변협회를 조직하게

서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통을 갖게했다. 이중간 한국YBA 정책실장에 의해

면 개선교의 이주민 활동은 두 가지 맥락으로 전개되는데 첫째는 사회협동체 앞

장시 오던 민중교회운동의 연장으로서의 지원활동이고, 둘째는 ‘미주로호’27)을

찾아나서는 해외선교의 연장으로서 그 대상은 이주노동자로 둘린 것이라고 한다.

불교계는 2000년대 들어서 이주민노동자 지원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6년 서울 지방의회에서 금을 얻었을 것을 시작으로 2000년 구미 보건의료, 2004년

안산 보문선원 등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2008년에 개별 단체들의 모임

인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설립해 공동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지혜로운 여성’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여성주의

상담,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및 복지 프로그램, 상담원의 자세와 기초이론, 다문

화가정지원 서비스 및 복지프로그램, 상담원의 자세와 기초이론, 다문화가정 법률

및 제도, 다문화가족의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론 및 실천

24) 현재 종무설의 다문화사회정책으로는 전등사 이주민 조정센터(조계종), 명락사 다문화가족

음식문화재단(바탕), 한국기독교협회협의회 다문화 이력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협회(가족

교), 서울대교구 외국인 노동자 부활해독체(천주교), 지구촌여성나눔 외국인 근로자 기적문

화 재단(임마당기독교), 한국동교연합선도기구(URD, 다문화 가정 종교문화인프(연합) 등

이 있다.


26) 경기신문, 2009.10.1, 가사 참조.

27) 미술 등 중독은 그리스도인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중독개입을 막으며 관련단체로는

KWMA(한국제신교협회협의회)와 신학 독립기구로 1993년 설립된 교단, 신교단체, 교회와

연합하여 비정조직 선교의 복음화를 이루며, 교회 및 신교단체의 전략선언 편성임을 위

해 시행하는 UPMA(비정조직선교연대)가 있다.
적 토대를 확장시키기도 하였다.  
그 외 한국종교인평화협의회의 KCRP의 종교인 다문화 평화축제와 한국종교연합의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종교문화캠프와 같은 사례도 있다. 
신광철에 의하면, 현 단계 한국종교계의 다문화사회 지원 활동은 천주교의 정부교회와 같이 채택을 통한 소통을 도모하는 유형, 명복사의 명락칠리지와 같은 자립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유형, 불교여성개발원과 같은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론 및 실천적 토대를 확장시키는 유형, 그리고 한국종교인평화협의회의 종교인 다문화 평화축제와 같은 연합과 계범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증진을 모색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주외국인들은 도국에서 가지고 있던 종교적 체제와 일치하는 종교기관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도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종교기관을 활용하기도 하여 종교는 외국여주민의 한국사회에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 심화될수록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게 되고 이로 인한 종교관련 차이의 종교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종교간 갈등은 물론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문화는 전 국민의 토대를 마련한 종교관련 다문화 관련 정책에 새롭게 배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인천의 경우 접합이 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종교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인천에 있는 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운데 5곳이 기독교와 천주교 등 종교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종교에 거부감을 느끼는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을 돕는 기능을 하며 종교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아직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종교 법인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에 제한을 들 수 있지만 종교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8) 불교신문, 2008.8.13.기사 참조 
30) 경인일보, 2011.6.15. 기사 참조, 이 기사는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자 나이도(28여)는 "연수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면서 임구부에 종교가 있다. 무슬림을 강하게 믿는 한국인들은 기독교가 운영 이용 빌라 센터에 가치 없다며 "교회가 운영하는 곳에 다니는 것은 사체가 무슬림에게는 비난받을 일이다"고 전했다고 적고 있다.
최첨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께 연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문화사회인 우리 나라에서 종교간 화합을 이루는 것은 사회의 통합에 아주 중요하다. ……” 예를 들어 7대 종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종교문화대축제 및 이웃종교 화합추진을 비롯해 종교간 대화모임과 종교인 교류대회, 이웃종교 성지순례, 종교경년 평화캠프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전환 중이다. 앞으로도 이런 종교간 화합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하였으나 현재 문화부의 예산 중 종교 간등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의 (URI-K) 종교평화 지수 제정을 위한 폴로키움, 한국종교연합 평화포럼,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종교문화캠프, 종교연합 자원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종교문화활동사업 지원 예산이 전부이며 종교간 화합이 문화부 업무계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아주 미미하다.

종교는 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념체계로 결속된 집단이며, 그 어떤 사회적 이익이나 이념 집단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종교들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길로 안내하려는 노력은, 일반 사회의 이익과 이념 집단 사이의 대립과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모델이 될 것이다.

V. 결론

이제까지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성숙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급속한 외국 인구의 증가는 우리에게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6년 조사가 시작 된 이후 2009년까지 매년 20% 이상 증가율이 상승하였고 저출산, 3D형의 사회 통상적으로 한국이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인구의 약 14% (643만 명)을 수입해야 한다는 유엔의 전망32은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정책에 별도로 별도의 모델을 제작하고 있다. 즉 소수집단의 결혼이민자에게 출산수의 문화 경제성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문화에 신속하게 적응함으로써 다수집단 사회의 성원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다문화 정책은 보편적 가치나 인권보다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

31) 범보신문, 2012.5.21.자 기사 참조
32) 머니투데이, 2012.3.21.자 기사 참조
반으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획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내 맨DOWN 계절과의 한계 문제, 재정 부담, 사회적 부담이 문제시될 때 반발과 어려움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결혼은 주요성과 그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서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국인의 차별적인 의식과 태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은 주고 있다. 하나는 현재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 주류 이민자 그룹은 과거 유럽계 이민자와는 달리 종교와문화적 측면에서 주류 프랑스인들과 차이가 큰 이슬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희생의과 종교와 문화, 절차가 거주지역까지 다른 이 새로운 이주민들이 교육, 고용, 주택, 의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류 ‘프랑스인’이 되기에는 절연 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상에서 존재하는 인종주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통합모델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아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이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데 있다. 프랑스의 정치적, 법적 정통은 이주민들의 문제는 출신국가와 무관한 개인으로서의 이주민들의 문제로 여겨진다. 행정, 의료영역 등에서 통계자료에 인종이나 종교 변수를 붙지 않는 판단도 이러한 전통에 기인한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프랑스사회에서는 이민문제를 정식적 경제적 혹은 인종주의가 반영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발생한다. 즉 현재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전통은 프랑스의 통합모델 자체가 어려운 점은 아니라 범죄지역의 절반수호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는 2세대들은 프랑스의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된다. 한국 인구의 약 2.5%는 외국인-계화자와 그들의 자녀들이다. 앞으로 다문화 정책은 절정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은 정치적 성향에 기반한 수밖에 없는 정부가 주도해진 데다, 정서적 있는 파트너십에 의거한 참여와 더불어 필요함을 프랑스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용제는 다문화정책에 있어서의 차별의 형식을 제도적 영역과 비제도적 영역으로 나누고, 다시 비제도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기준으로 동화와 공존으로 나눌 때 제도적 영역에서 배제의 형식은 다는 다를 경우 존재하게 하는데 그것은 통일화되지 않는 차이이며 다만 차이로 존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차이가 통합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제시화되고, 차별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도급 차원에서 통합의 다문화정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통화의 형식은 새로운 배체를 만들어 낼다는 것이다. 이는 통화주의 모델에 입각한 정책으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대체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과 다문화 관련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민자들과의 진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의 다문화 관련 활동은 우리의 사회 통합에 매우 필요하다.

이에 종교관련 다문화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기대해본다. 먼저 정부의 태도변화이다. 이민사회에의 영향을 위한 이민자의 의지 부족도 문제지만 이민자의 문화의 받아들이는 국가의 그릇된 자세 역시 갈등의 촉을 갚게 만든다. 종교 갈등은 서로 상대의 종교와 관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신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종교자립권법을 시행하다 하더라도 종교간 교류와 이해의 펑이 없는 상태에서의 제도화는 종교활합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체는 예산을 통해 구현된다. 정부의 임은 모두 예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종교 갈등은 정부의 관심에 차라리 있다는 느낌이다.

또한 다문화 지원 사업의 시행은 종교간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의 인권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는 정체가 공급자자 입장을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려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밝혀주고 있다.

두 번째로 종교관련 비활성화에 대한 바람이다. 정부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NGO형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위주로 진행되었고,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사업영역이 제한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활동은 보다 창의적이며 정부가 수행하지 못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각 종교의 특성과 종교가 자리를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종교는 차별, 사망, 인(信) 등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종교가의 다문화활동은 단순한문화와 통합력을 높이고 다문화사회로 막 전개하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문제인 외국인에 대한 차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반을 지니고 있어 종교계의 적극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종교계 스스로 종교적 갈등을 없애는 데 더욱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평화운동이 보다 많은 종교인들의 공감을 얻고

이 운동이 일반 종교인들에게 확산될 구체적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활동에 대한 종교계의 협의체 구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문화사회는 다문화사회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러 선행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종교간 갈등은 사회갈등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단일협동의 건강에서 새로운 계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종교계의 대중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주제어: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종교, 종교계의 다문화활동, 절대신헌책계

최고집수일: 2012년 5월 17일
심사일로일: 2012년 6월 13일
계제확정일: 2012년 6월 20일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현안분석38호)”, 2010.11.29.
김범수 외, 『다문화 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김선택, “다문화사회와 현대”, 『현대학연구』16(2), 2010.
김은미 외,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2009.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면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
시행장학,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
양인숙 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와타도 이치지, 『외국인 집단기지지역에서 모여인 공동생활 구축의 의미,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책성 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아이체육원 영유, 『다문화주의의 이해』, 동녘, 2008.
니시카와 나오오, 윤석조 외, 『국민이라는 과물』, 소병출판, 2002.
이용객, “다문화주의 정책요구 결정요인 분석: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 박사학위논문, 2009.
조성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지원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민권』 8(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조지태, “한국 다문화정책의 한계와 미래의 대응방안”, 육산발전연구원(연구자료), 2009.
최경옥, “한국에 있어서의 다문화의 정책적 시각”, 제4회 동아시아 문법학의 현황
및 발전추세 국제세미나 논문집, 2010.


Jennifer E. Manning, Membership of the 112th Congress: A Profile, CRS Reprotr for Congress, 2011.


Multiculture Being Formed in Korea and The Role of Korean Religions

Pak. seong ho (SNU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Sciences)

It is difficult to see the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is mature. But rapid ri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demands us beginning to worry seriously about transition into an Multicultural society.

Since 2004 the number of foreigners has increased sharply. To cope with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e various policies for multicultural problems.

Now the Government-sponsored Multicultural Policy Coordination is quite adopt the assimilative immigrant policy.

Because The government only support and aid marri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to settle in the nation without problems to easily assimilated into Korean culture.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experts on multiculturalism believe that Koreans need to be educated on how to understand an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But In reality, there is no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on multicultural reality in Korea, so that these policies performed by each ministries without cooperation and consistency have resulted in conflicts and confusion. To coordinate multicultural policies, we recommend to prepare a basic law on multicultural affairs so that ministries can carry out multicultural policies i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way.

The recent cultural conflict in France, revealed after Europe’s unification, appears to be a case of globalization’s internalization among migratory laborers. The resulting conflict between cultures proves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or integration, without multicultural cognizance and civic ethics, is but a prelude to serious cultural conflict. The aspect of assimilative immigrant policy development gives great instruction to us who enter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ism basically respects the difference but not differentiation.
Pulpits in Korea are actively involved in Multi-cultural activities in preparation for the multicultural era.
Pulpits' Multi-cultural activities increase the social unity and will be the foundation for overcome The problems of Korea facing Multicultural society like Discrimination against non-Koreans, Social distance with foreign groups.

But multicultural society is multi-religious society. In cases of countries which already adopted multiculturalism, religious conflicts is factors creating the high social conflict level. so Pulpits in Korea should prepare to take measures for the advent multicultural society.

Given that a multi-cultural society is irrevocable and we must embrace immigrant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provide policies helping immigrants successfully settle in Korea while residents should be aware that immigrants are their neighbors who will develop Korea's future together, creating an integrated local community with emotional support for them to develop a strong multi-cultural society.

The conflict and problem of human societies were solved by their self-reflection and then they process to better future. As this self-reflection, religion is a big role for us, and religion is absolute belief-system, has a large influence in the society.

In the multicultural era, Our society expect that religion contribute to society, and improve the world.

Key Word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problem, social policy, cultural policy, Pulpits' Multi-cultural activities, religion, absolute belief-system